

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165개소 근로감독 실시

- 건설·숙박·음식업 등 취약업종 집중 근로감독을 통한 체불청산 분위기 확산

고용노동부 청주시청(지청장 연창석)은 2026년 9월 중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업종 165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전수조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근로감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금체불 청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, 감독 대상은 건설업·숙박·음식업 등 취약 업종 등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다.

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명세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,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 후 미이행시 사법조치 하는 등 임금체불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연창석 지청장은 "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청주시청 노동기준감독과	책임자	과 장	양은희 (043-299-1216)
		담당자	팀 장	김선희 (043-299-1255)